



라파엘 클리닉 2017 호암상 사회봉사상 수상

1997년 설립된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 '라파엘클리닉'은 당시 전무하던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주도하여 19년간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다. 매주 일요일 성북동 라파엘센터 진료소와 동두천 분소를 운영하고 있는 라파엘클리닉은 현재까지 약 23만 명이상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료진료와 수술지원을 지속하는 등 의료소외계층 해소와 인종과 국적을 뛰어넘는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라파엘클리닉의 시작을 주도했던 대표이사 안규리 교수(서울대병원 신장내과)는 故 김수환 추기경과의 인연으로 살인 누명을 쓴 파키스탄 사형수들을 알게 된 후,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마주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학생회(CaSA)와 함께 첫 진료를 열게 되었다.

꽤 작 두 개에 필요한 약품만 몇 가지 실어출발했던 라파엘클리닉은 현재 17개 진료과목을 갖춘 의료봉사단체로 성장했다. 첫 진료 때에 환자 30여 명으로 발걸음을 내딛어 현재 하루 평균 300여명의 환자들이 다녀간다. 성당 한편, 신학교 교정, 고등학교 복도를 전전했던 열악했던 진료환경은 지난 2014년 4월,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함에 따라 처음으로 독립된 진료장소를 갖고 쾌적한 진료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생전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애뜻하게 살폈던 김수환 추기경은 “라파엘클리닉을 통해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이땅의 인간 차별과 무시 속에 버려진 상태에서 처음으로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았다”고 각별한 애정을 아끼지 않았다.

라파엘클리닉은 1차 진료뿐만 아니라 정밀검사, 수술,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는 협력병원으로 안내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60여 개의 병원과 연계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검사나 치료, 수술 등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진료에 발생하는 비용도 환자상담을 거쳐 라파엘클리닉이 일

부 또는 전액 지원한다.

또한, 유관 단체와 연계하여 각국 언어로 번역된 보건 교육 자료를 발간하여 환자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8년째 이어오고 있는 다문화가족 이동클리닉은 각 지역이 독립 운영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최근 다문화가족의 정신건강문제와 자녀, 그리고 중도입국 자녀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됨에 따라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라파엘클리닉은 순수 자원 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운영된다. 1년에 활동하는 봉사자수만 2,000명에 이르며, 의사, 간호사, 약사, 의과대학생, 일반봉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자들이 참여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덕목’, ‘다문화에 대한 이해’, ‘봉사자간 의사소통’ 등을 교육하여 봉사자가 인간 존중과 생명의 소중함을 공감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한, 2007년 ‘라파엘인터내셔널’을 발족하여 몽골, 네팔, 미얀마 등 의료빈국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을 초청하여 양질의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지 세미나를 통하여 선진 의료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라파엘클리닉은 향후 상설 진료소를 확대하고, 우리 동포의 손으로 북한 의료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전망이다.

▼ 라파엘 클리닉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

